

《인 사 말》  
《ごあいさつ》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일본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日本 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ごあいさつ



伊藤 勲

日本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も、お蔭様で、3 回目を開催させていただく運びとなりました。ご協力くださいます皆様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高齢者が住みなれた地域の中で暮らし続けるためには、その生活全般を支える専門職であ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活躍が期待されております。今回は、高齢者の自立的で健康な老後生活のための専門的な高齢者福祉プログラムとサービス開発のため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どのように地域社会の資源を開発し活用していくかを学び、韓日両国の高齢者福祉の発展に向けて、その方向性を討議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については日本の介護保険制度、韓日の認知症高齢者福祉を通して問題提議されると思います。さらに三星福祉財団の韓龍外社長の記念講演など、本年もまた皆様のご理解ご協力のもとに素晴らしいプログラムを組むことができました。重ねて感謝申し上げます。

6 月 22 日、韓国と日本が国交を正常化した韓日基本条約の調印から、40 年目の節目を迎えました。両国では、本年を「韓日友情年 2005」と定めて、各種交流事業や文化紹介事業を通じ、両国民のさらなる相互理解と友情を深めることを目指しております。

加えて、韓日の首都を結ぶシャトル便が 8 月から毎日 8 便に増え、ソウルー東京間が日帰り出張圏に入りました。日本では韓国の言葉や文化を学ぶ人々が増え、韓流ブームはとどまることを知りません。

こうした動きをとおして、多くの人々は国境を越えた心の交流を望んでいると思います。民間財団には、社会改革を目指すという一面がございますが、当財団といたしましても、あらゆる活動を進めていくなかで人と人をつなぐ信頼が築かれ、様々なネットワークが生ま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この「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交流の小さな小さな一つの点にすぎ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小さな点が一つ二つと増え、点から線、線から面へ、大きく広がっていくことを考えますと、毎年、継続して助成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に喜びを感じます。

この度の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両国の高齢者福祉のあり方に対する理解と関心が深まり、豊かで明るい高齢社会を、韓国と日本、さらにはアジア、世界に築いていきますよう皆様と共に一層の前進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 인 사 말



이토 이사오  
일본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도 어느덧 3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자가 생활해오던 지역 속에서 계속 살아 가기 위해서는 그 생활 전반을 지지해주는 전문적인 소셜 워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의 자립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소셜 워커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해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여 한일 양국의 고령자 복지의 발전을 향해, 그 방향성을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 한일의 인지증(치매)고령자 복지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삼성문화재단의 한용외 사장님의 기념 강연 등, 올해도 또한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속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월 22 일,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 기본 조약의 조인으로부터, 40 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양국에서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 2005’ 로 정해 각종 교류 사업 및 문화 소개 사업을 통해 양 국민의 새로운 상호 이해와 우정이 깊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일의 수도를 연결하는 셔틀편이 8 월부터 매일 8 편이 증가하여 서울에서 동경사이가 일일출장권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말이나 한국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해 한류붐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은 마음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재단에서는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만, 본 재단으로서도 모든 활동을 해 나가는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가 쌓여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의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교류의 작고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점이 하나둘씩 늘어나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크게 퍼져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매년 계속하여 조성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번의 심포지엄에 있어서 양국의 고령자 복지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져 윤택하고 밝은 고령사회를 한국과 일본, 더욱이 아시아, 세계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한층 더 전진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